

2차시. 미래예측을 위한 준비_5가지 마인드셋

01. 예언할 것인가? 예측할 것인가?

▶ 미래 예언:

예언은 뛰어난 예지력을 가진 누군가가 결정론적 시각에서 미래에 관해 던지는 **철저히 주관적인 진술**이다. 미래는 정해져 있다는 결정론이므로 사람들을 운명론에 빠져들게 하여 미래 개척을 위한 노력을 유발하지 않는다.

▶ 미래예측:

인간이 미래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**인간은 가능성을 추정할 뿐**이라는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본다. 미래학에서 말하는 미래예측은 가능성 중심 미래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**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발생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밝혀 제시하는 것**이다.

02. 트렌드 Vs 통찰 Vs 미래예측

▶ 트렌드 :

‘**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흐름**’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, 한국말로 풀이하면 추세, 동향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, 추세나 동향이라는 말은 과거의 자료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정한 패턴이 보일 때 사용한다. 즉, 트렌드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**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관찰된 변화의 흐름**을 담고 있을 뿐이다.

▶ 통찰(洞察):

한자로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현상이나 사물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, 영어로는 흔히 insight라고 하고 풀어서 해석하면 ‘**안을 들여다보다**’란 뜻이 된다. 다시 말해 통찰이란 **지금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능력**이며 왜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**복잡한 맥락(전후 관계)**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. 즉, 통찰이란 단어 자체에는 미래에 대한 의미는 담겨 있지 않다.

▶ 예측(豫測) :

사전적 의미는 **과거와 현재를 살피어 미래를 미리 헤아려 짐작한다**는 뜻이며, 예측이란 단어에만 유일하게 **미래라는 의미가 담겨** 있을 뿐이다.

03. Fact와 Data에 주목하라!

- ▶ **미래학을 공부하는 이유:** 미래학자들의 미래예측 시나리오를 따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**미래학자들의 사고법과 미래예측 방법론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예측하는 역량을 키우고자 함**이며, 미래학 책이나 미래 전망 보고서 등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Fact와 Data이다.

- ▶ 전문가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도 참고하되 스스로 미래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예측을 위해 활용한 **Fact(사실 정보)와 Data(수치화된 패턴)에 집중**해야 한다.

▶ Fact :

실제 일어난 사실 또는 사례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변화에 대한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.

▶ Data :

Fact와 함께 **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수치화된 자료**이다. Data는 미래에 대한 예측에 도움이 될 것이다. 최근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해지는 이유도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**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Data 기반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**해지고 있기 때문이다.

04. 변화는 위기인가? 기회인가?

- ▶ 변화를 다소 뒤늦게 인지했더라도 위기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분명 기회가 될 수도 있다.
- ▶ 위기(危機)라는 한자어 속에는 위기와 기회가 모두 담겨 있다. 이 또한 위기 속에 기회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.
- ▶ 제우스의 아들 '기회의 신' 카이로스(Kairos) 신'의 모습 중, 저울과 칼의 의미는 기회가 내게 다가왔을 때 놓치지 말고 저울을 꺼내 달아보고 분별하며 판단한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지나가기 전에 칼같이 재빨리 결단하고 잡아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. **변화는 위기가 아닌 기회이며 먼저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.**

05. 비즈니스는 타이밍이다.

- ▶ 미래학을 공부해 보면 미래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. 왜냐하면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큰 방향성은 이미 미래학자들의 오랜 연구를 통해 대부분 나와 있고 큰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.
- ▶ 미래에 대한 방향을 알아도 결국은 **어느 시점에 변화하고 실행하는 것이 최선인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** 너무 늦게 시장에 들어가도 문제지만 너무 이른 시점에 들어가도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. 적절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?
바로 **방향과 속도가 타이밍을 결정한다.**